

- 64) Grosheide, F. W, *Corinthians I*(Grand Rapids : Eerdmans, 1984), p. 167.  
 65) Smedes, Lewis B, *Divorce : an ethical response*(Jackson : The Reformed Journal), pp. 10~13.  
 66) 존 스토틀,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p. 359.

## 나의 설교론

현 유 광  
 (교수, 실천신학)

나는 1977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해 6월 고시를 거쳐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지금부터 약 17년전의 일이다. 그 동안 나는 부교역자와 유학생으로서 약 10년, 그후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의 담임목사로서 5년, 그리고 귀국하여 교수로서 이제 2년이 되어간다. 우리나라의 일반 목회자들과 비교해 볼 때, 나의 경력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는 설교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또, 교회를 서너번 이동하다 보니, 대체로 내가 “은혜”받았던 설교를 반복해서 한 적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형편에서 “나의 설교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니 부끄럽다.

이제 나의 형편을 진솔하게 객관화시켜 이야기하므로써 먼저는 나 자신에게 유익하리라는 판단아래 만용을 부려본다. 또한 나 자신이 설교자로서 추구하는 바를—현재 그대로 다 하고 있지는 못하나—이야기하므로 보다 나은 말씀의 수증자로 성장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1. 본문 선택

어느 설교자나 마찬가지로겠지만, 설교자가 설교본문을 택하는 것은 공통스럽기까지 한 과정이다. 설교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설교해 나가도 되겠지만, 설교자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본문선택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설교준비의 한 과정이다. 나는 설교본문을 정하는데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sitz im Leben)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설교의 책임을 맡을 때마다 가진다. 때로는 쉽사리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때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때가 나에게서는 더 많은 것 같다. 설교본문이 정해지지 않는 때의 마음의 고통은 매우 크다. 설교본문과

제목을 가르쳐주어야 할 시간이 가까와 오면 마음이 초급해 지기도 한다.

나는 설교에 있어서, 본문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상황을 생각하고 나서 본문이 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의 경우는 성경의 한 책을 정하고 강해설교를 해 나가는 경우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아버지주일이나 종교개혁주일, 또는 교회가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는 때의 설교에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때로 어떤 감동적인 예화가 있을 경우, 그 예화가 하나님의 뜻을 당시의 상황에서 회중에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그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본문을 찾아 설교를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성경을 이용하여 나의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 하여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또한 성경본문에 충실한 주석 위에 예화가 사용되어야만 한다.

나는 또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자체에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하여 성경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자 힘쓴다.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본문의 의미를 나의 성경의 여백에 써 넣기를 좋아한다. 또한 그 설교자가 제시한 대지보다 더 나은 대지가 떠오를 때, 그 설교를 근거로 나의 설교를 만들어보곤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하실 때를 준비한다. 나는 신학생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꼭 메모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신학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 있다면 보다 나은 설교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설교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설교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영적성숙을 위한 뿐 아니라, 설교자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해야 한다. 어떤 설교라도 배울 것이 한 가지는 있기 마련이다. 소위 “좋은” 설교는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소위 “나쁜” 설교는 피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

## 2. 논지선정 및 조직

개인적인 경건과 나아가서 설교준비를 위해 나는 매일 성경을 10장 이상씩 읽으려고 힘쓴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보면 나의 마음이 특별히 끌리는 말씀이 종종 생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그 말씀에서 듣게 된다. 그리하여 논지와 대지가 생기는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라도 곧 바로 설교화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때와 장소와 청중에 따라 그 적용과 강조점이 달라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목상이 있어야 한다.

목상은 흔히 반추적, 실존적 개입, 성육화의 과정이라고 설명된다. 읽은 바 말씀을 거듭 생각하며(반추적), 자신이 성경이 기록된 상황에 들어가 보며(실존적 개입), 그 말씀이 설교자 자신과 오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성육화)를 생각해 보는 것이 목상이다. 우리는 이 목상의 과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또 기대하여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설교의 논지를 정할 수 있다.

나는 상황이 먼저 다가오는 가운데 설교본문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본문에 충실하려고 힘쓴다. 설교자의 본분은 설교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대로, 청중들이 설교를 통해 성경본문의 뜻을 보다 잘 이해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서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대학시절에 모 학생선교단체를 통해 귀납법적 성경공부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에 성경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해 보고, 적용하는 습관이 오늘날 나의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서 나는 성경주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설교자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자체를 많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위한 보충적인 자료로 주석을 사용하려고 하고, 나아가 내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부분을 확증하는 근거로 사용하려고 한다.

본문이 정해지고 나면, 나는 본문을 몇번이고 읽으면서 내용을 머리에 그려본다. 그 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며 다음으로 그 말씀과 현실을 연결해 본다. 이러한 목상의 과정을 충분히 가지려면 가능한 한 본문선택이 일찍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면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는 적어도 설교하기 한 주간 전에는 설교본문을 정하려고 한다. 설교본문을 미리 정해두면 묵상할 시간도 많아지고, 본문을 근거로 설교를 구상할 여유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는 본문에 근거하면서도 현실에 부합하는 논지를 확정하며, 설교의 제목을 세운다.

나는 강해설교를 준비하듯이 본문을 접근하면서도 가능한 한 세계의 대지를 세우면서,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려고 한다. 강해설교가 설교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하지만, 청중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쉽다. 즉 본문의 부분 부분을 설명하며 적용하다 보면 설교가 지적인 면이 강조되고 건조해지기 쉽다. 설교는 성경공부와는 달리 정적인 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언어와 몸짓언어(body language)를 매개체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설교에 있어서는 하나의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깊이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설교가 청중들의 정서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청중들이 그 설교를 들은 후에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와 결단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강조점을 여럿 두기보다는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제목을 정할 때, 논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성도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을 제목으로 정하려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본문에 있는 말들을 사용하므로 제목을 통해서 청중들이 본문에 접근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3. 설교의 기록

나는 익숙한 본문으로 설교할 경우 개요만을 적어서 강단에 서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적는다. 나는 설교를 써내려 가면서 “내가 하게 될 이 말을 청중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쓴다.

또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신학적인 느낌이 들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면, 그 모임 또는 예배에 참석하리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생각해낸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가정한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가장 좋은 방법과 말을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완성시켜 간다.

### 4. 도입부와 서론

나는 설교의 도입부나 서론에서, 설교의 주제와 관계가 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내어 하려고 노력한다. 많은 설교들이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면에 치우치는 것을 본다. 특히 서론에서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신학적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설교자들을 본다. 이러한 시도가 강의에서는 무난할 줄 모르나, 설교에서는 그렇게 좋은 출발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특별히 주일 낮예배 설교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딱딱한 논리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설교를 시작해야 한다.

보통 미국의 많은 설교자들은 설교의 도입부에서 설교의 내용과 조금,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스개소리(joke)를 잘한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이야기가 교인들에게 실없이 들려질 때도 있으므로 주의는 해야 하나, 설교자

와 청중 사이의 공감대(래포-rapport)형성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더 많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하찮은 것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호감이 가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스개소리는 좋은 관계형성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5. 본론

나는 구속사적 설교에 대해 복합적인 느낌(mixed feeling)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중심, 구속의 역사적 진전, 구원을 강조하는 점에서 나는 구속사적 설교가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설교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 거부감을 느낀다. 성경은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할 뿐 아니라, 구속받은 자의 삶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더우기 화란과는 달리 기독교가 들어온지 이제 100년이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문화의 뿌리는 너무도 일천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빌릴 뿐 실제에 있어서는 무속신앙과 별로 차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설교자들은 구속사적인 접근 뿐 아니라 모범적인 접근을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나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항상 언급하고자 한다. 설교에 있어서 1차적인 목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은혜 속에서 더욱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의 뜻을 더 잘 이루어 드리도록 하는데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경우 매번의 예배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주(Lord)되심의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 그러하므로 예수님과 관계할 단 한번의 설교를 듣고서라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나는 우리의 믿음이란 전인적이면서도 통전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신앙생활이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느끼고, 의지를 사용하여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순종은 교회 내에서 주일에만 있어서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언제 어디서나 있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나는 설교를 통하여 청중들이 성경의 인물들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점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성경의 인물들을



## 아름다운 교회

### 사도행전 13 : 1~3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아름다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하기보다 도리어 더 어둡게 하고, 우리의 찌푸린 얼굴을 환하게 하기보다 더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세째로, 손해가 되는듯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믿음의 소문을 가진 교회임을 알지만,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 첫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은 교회

안디옥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와 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배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될 때,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오늘날에는 선지자의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 “모태신자”라고 합니다만, “모태교인”은 있어도 “모태신자”는 없습니다(언약의 백성은 있지만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신앙고백에 의해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출생 후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관습을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는 신자가 됩니다. 신자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알아가며 모방해 봄으로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5 : 12에 보면 이

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교회에 나오신지 3년 정도 되시면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가르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잘 배우면서 장차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실천하고 실천하면서 배워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배우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하루를 지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곧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안드레는 하루만에 교사가 된 것 입니다. 우리도 배우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교회에 이러한 교사들이 많이 나타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금식하며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고 했습니다.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여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힘써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회사상 초유의 획기적인 일을 맡기셨습니다. 해외선교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지고 생활이 나아질 때, 그때가 또한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안디옥교회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대한 뜻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좀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당을 지었다고 해서, 선교사를 좀 지원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 되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보다 “내가”가 나올 때, 교만해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싸움과 이상한 소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만을 높이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물질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를 높이기 위해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지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지요?

세째로, 손해가 되는듯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선지자와 교사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가면 안디옥교회가 어찌될지 우려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는 선교사로 안수하여 보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고, 좋은 옷을 입을 때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분이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나에게 좀,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찌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의 뜻이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는지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아름다움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이러한 아름다움을 소유하도록 힘써시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교사로서 성장하십시오.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전적으로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교회는 분명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지역과 한국을 복음화되게 하며,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앞에서 언급한 나의 설교원리와 비슷한 점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미안하다. 기억이 좀 회미하기는 하나 이 설교는 1933년 가을 모 교회의 헌신예배를 위해 준비하였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설교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던 중 이 본문이 떠올랐다. 또 본문을 몇번 읽는 가운데 세 개의 대지가 어렵잡게 떠올랐다고 기

억된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제도화되어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기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닥아온다. 이 설교 가운데 전주에 있는 안디옥교회의 사역들이 예로 사용될 수가 있겠다. “교회는 개혁되었으므로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기억하고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교회의 사명들을 선포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www.kyobooks.com**